

‘위안부는 매춘’ 철학과 최정식 교수님께

박 윤 재
교수 · 사학과



최정식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사학과 박윤재입니다. 같은 문과대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선생님을 뵈 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구나 교육이 학과별로 이루어지는 현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선생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철학과 전공 수업에서 위안부와 관련한 발언을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해듣기로 위안부의 자발성을 강조하셨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위안부는 독도와 함께 한국 민족주의의 중심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면 분명한 목적 나아가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리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목소리는 소문으로만 전달될 뿐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얼마 전 선생님은 문과대학에 대자보를 붙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대학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제 생각을 적습니다.

선생님은 철학자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참과 거짓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인용하며 그가 “참인 것은 참이고 거짓인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역사적 사실은 참과 거짓보다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맥락”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학이 그렇습니다. 근대 역사학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자 하고, 따라서 ‘역사의 법칙’에서 진실을 다루는 방식의 접근은 강조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그 이해를 위해 의미와 맥락을 찾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인한 데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예로



최정식 교수는 9월 26일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을 해명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 같은 날 위안부와 관련한 발언을 철회한다는 성명서를 동문들에게 회람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업에서 역사 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사진=대학주보 DB)

“

역사적 사실을 참과 거짓의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의미와 맥락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는 자신의 주장이 지향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들며, 위안부가 “일본 순사에 잡혀 갔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고, “강제로 납치되었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팔려간 처녀들의 “처참한 사정을 모른 채 하고 매춘이었으니 나쁘다고 제가 말했겠습니까?”라고 항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억울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만든 당사자는 선생님입니다. 강제의 반대말은 자유타 자발입니다. 강제적으로 납치되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희석하려는 사람들은 계약서의 존재 등 위안부 모집의 자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을 더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일제의 조선 침탈과 관련하여 “이완용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후의 책임은 고종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종 책임은 고종에게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만든 국가를 잃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가지는 맥락과 의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종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식

민의 책임에서 이완용은 서서히 풀려납니다. 이른바 친일파의 책임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 있었던 일본의 책임 역시 작아집니다.

선생님은 위안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딸과 심지어 아내도 팔아버리는” 조선의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적절합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식민지 조선의 가부장주의가 비판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안부를 ‘민족의 딸’로 생각하다 보니 그들이 ‘빈민의 딸’이었다는 점을 놓쳤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우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시각이 강조될 경우 결국 위안부 문제의 뒤에 있는 일본의 책임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원했기에, 결국 일본군이 원했기에 위안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 비판이 없다면 위안부 문제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친일파의 책임이 작아지고, 일본의 책임 역시 작아지면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한국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으로 그칠까요? 아닙니다. 지나친 걱정일지 모르지만, 식민 지배에서 일본이 한 기여와 공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공헌

과 기여를 했다는, 친일파는 그 다리 역할을 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가능성이 큼니다. 저는 식민지근대화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의 책임이 작아지면서 부각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이 전쟁이었으니까요.

저는 선생님의 주장이 의미가 없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인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신 ‘용기’가 놀랍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자신의 주장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이해될지, 결국 무엇을 강조하게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참과 거짓의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의미와 맥락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는 자신의 주장이 지향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는 인류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극복에 철학자나 사학자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저에게 감기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